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정 종 숙 성 승 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탐색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5명의 상담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중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을 통해서 80개의 개념, 24개의 하위범주, 13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고, 축코딩을 통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택코딩을 통하여 핵심범주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에도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 성폭력 이슈 대응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상담, 상담활동가, 여성주의상담, 근거이론

[†] 교신저자: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08559)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70길 8.

02-890-2834, E-mail: madisonair@naver.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유형 중의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과 권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은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로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정문석, 2015). 우리나라에서 1983년 상담의 방식으로 시작한 여성인권운동은 성차별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내구타와 강간 등이름이 없던 여성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여성인권운동사, 1999). 사회문제는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생겨났다.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법률·의료지원, 쉼터연계와 함께 성폭력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김보화, 2022)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반성폭력운동으로서 개별 사례로부터 사회변화를 위한 담론 형성의 토대를 쌓는 중요한 작업으로(안은주, 2015) 여성주의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은 부분 우리 사회의 성차별주의로 인해 야기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인식을 통한 통합된 인간이 되도록 그들의 성장을 돕고, 그와 함께 여성문제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인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는 상담이다(강문순, 2003).

여성주의상담의 실천은 여성폭력피해 경험

자들을 주요 내담자로 하는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지원 시설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이주연, 2014), 상담전문가 보다는 여성인권단체 상담소 상담활동가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왔다(구유정, 2018). 한국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김광은, 2000). 이후 여성주의상담 원리에 대한 연구(강문순, 2003; 김민예숙, 2010)와 여성주의상담 적용실체에 관한 연구(이지연, 2004), 여성주의상담자 교육모델에 관한 연구(김민예숙, 강문순, 2004) 등이 실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연구 주제, 대상,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주연, 2014).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한 본 연구는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회복을 돕고, 성폭력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을 지원 하는 기관이 확대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신고 된 범죄는 2013년 2만9097건, 2020년 30,105건에서 2021년 32,8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대검찰청 2013, 2021, 2022), 성폭력은 이중적인 성규범이나 사회적 편견 및 통념적 시각 때문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전명주, 2021)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성범죄의 실태는 밝혀진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고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강정희, 2014).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의심하고 책임을 감수하게 하는 2차 피해(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2014)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요소에 의해 성폭력피해자는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사회적 기능에 후유증이 남는다(이숙애, 2000).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최민정, 2019). 따라서 성폭력상담은 성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권혜수, 2007),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경험, 느낌에 대한 접근이 없이는 여성 내담자의 문제해결 혹은 성장이 어렵다(강문순, 2003).

김민예숙(2010)은 여성주의상담을 ‘여성주의 철학의 관점에 입각해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변화를 조력하는 상담’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난 제2물결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1970년 여성주의상담을 하는 강간위기센터가 설립되었고(Enns, 1993), 우리나라는 매 맞는 아내 상담을 위해 1983에 창립된 여성의전화가 여성주의상담을 시작하였다. 여성주의상담은 한사람의 이론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다른 여성들을 돕는 여성운동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김민예숙, 2011). 여성주의상담은 상담활동가와 여성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 있는 가부장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이규미, 1996) 성차별적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Hooks, 1984)인 여성주의를 상담을 통해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에(김민예숙, 1999) 개인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주연, 2014). 따라서 여성주의상담은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상담에서 필요한 상담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상담 만의 고유한 특성은 여성주의상담 원리에 담겨져 있어서 여성주의상담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강문순, 2003). 김민예숙(2010)은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제시한 여성주의 상담자들의 문헌들을 연구하여 원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원리는 ‘개인은 사회적·정치적 위치를 가진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을 지향 한다’, ‘내담자의 권력을 강화 한다’, ‘여성·소수자의 경험과 다양성을 존중 한다’이다. 여성주의상담 원리에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 성과와 내담자 수용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구유정, 2018). 여성인권 단체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여성주의 상담원(김광은, 2000), 상담자(권혜수, 김소라, 2006), 상담지원자(변혜정, 2006), 활동가(안은주, 2015) 등이 있다. 김민예숙(2011)은 ‘상담활동가’로 칭했는데 이 명칭에는 반성폭력운동으로서 상담과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본 연구는 김민예숙의 정의를 따른다. 상담활동가들은 전공, 학력, 자격증보다 여성주의 인식론이 중요하며, 상담소는 여성주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된다(안은주, 2015).

하지만,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 협의회에 모인 기관 중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인식하고 계승하려는 기관은 20~30%(전민주, 201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1년 여성폭력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정문석, 2015). 사회복지차원 서비스 제공의 측면은 성폭력문제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보다는 성폭력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는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버려(변혜정, 2009)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활동가는 상담과 반성폭력운동의 경계에서 혼란

과 좌절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안은주, 2015). 또한 여성주의상담 교육은 상담과정 보다는 상담 내용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을 할 전문가의 수가 부족한 현실(김민예숙, 강문순, 2004)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지향하는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상담의 원리와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 과정을 밝히고, 상담지원자는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해야 하며,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강문순, 2003; 변혜정, 2006)한 연구가 있다. 안은주(2015)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급급하다 보면 개인적인 치유에 목적을 두는 심리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가치 실현의 연결고리를 놓치게 되면서 좌절을 경험한다고 하여 성폭력상담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김광은(2000)은 여성주의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원들의 여성의식이 여성운동가 수준임을 밝히면서 상담원들이 여성주의상담에 입문하게 되는 심리적 동기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하여 의식변화와 관련된 변인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성폭력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피해 여성이 겪는 고통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을 지원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녕을 도모하는 상담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정문석, 2014) 현실에서, 본 연구는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탐색하고 체계화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지원하는 상담활동가에게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3.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본 연구는 여성주의상담 실천과정을 밝혀 체계화하는 연구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Strauss와 Corbin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즉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밝혀내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Strauss & Corbin, 1994). 근거이론은 연구과정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분석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주의상담 실천과정을 체계화하는 연구로서 상담상황은 내담자들이 상담자 및 상담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면서 상담현장에서의 주요 환경인 상담자는 참여자와 같이 주도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호작용의 변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하기 적합하다(한영주, 2010)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여성주의상담 실천과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연구참여자 선정하기 위하여 목적표집을 하였다. 선정 기준은 여성단체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스스로 여성주의상담 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하며, 성폭력상담소 기준 상담 준비기간 및 실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부가적으로 여성주의와 여성주의상담 관련 학습을 하는 상담활동가이다. 연구 참여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중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인식하고 계승하려는 기관이 많지 않고(전민주, 2012), 스스로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을 밝히는 상담활동가가 드물며, 여성주의 상담자들 또한 매우 적은(이주연, 2014) 점을 고려하여 5명을 선정하였다. 5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근거이론연구(김민효, 정지혜, 이보람, 2022; 김도희, 안다혜, 2022)도 참조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자료들이 풍부하고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자로서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부가 질문을 하였으며, 한 명의 연구참여자 면담을 마칠 때마다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부가

질문을 예상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면서 자료가 반복되거나 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며, 30대 1명, 40대 1명, 50대가 3명이고, 학력은 대학교 중퇴 1명, 대학교 졸업 1명, 대학원 졸업 2명, 대학원 수료 1명이다. 여성주의상담 경력은 3년~8년으로 다양하여 여성주의상담 활동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여성주의상담 4명, 여성주의상담을 중심으로 다른 상담이론을 절충하는 상담활동가는 1명이다.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절차

연구자의 준비

질적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연구자 자신(Strauss & Corbin, 1998)이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민감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정문석, 2015). 본 연구의 연구자는 2003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여성단체에서 부설로 운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여성주의상담 경력(단체)	이론적 배경
1	여	30대	비혼	대학교 중퇴	5년(7년)	여성주의상담
2	여	40대	결혼	대학교 졸업	4년5개월	여성주의상담
3	여	50대	결혼	대학원 졸업	8년	여성주의상담, 절충
4	여	50대	결혼	대학원 수료	6년	여성주의상담
5	여	50대	결혼	대학원 졸업	3년(2년)	여성주의상담

영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여성주의상담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주의상담 실천을 위하여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스터디와 여성주의상담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수강하였고, 근거이론 연구를 위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론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근거이론으로 쓰여진 논문, 도서, 웹강의를 통해 근거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로 활동하는 동안 상담활동가 소모임에서 공부했던 여성학, 여성주의상담, 여성심리 관련 문헌자료와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피해 회복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관의 활동이나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최민정(2019) 논문의 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반구조화 질문지를 완성하여, 2022년 5월8일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에서 성폭력상담과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대담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여 여성주의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지를 수정, 완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게 된 계기,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어려움과 대처,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5명의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윤리 안내와 질문내용을 1주일 전에 전달하였고 면담을 진행하는 당일에 서명을 받았으며,

녹음과 연구자 메모에 대한 동의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준비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탐색이 더 필요한 내용은 부가 질문을 통해 듣고 마무리하였다. 면담은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녹음자료를 전사하고 개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정리하여 전화로 추가면담을 진행하였고, 분석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은 필요시 마다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면담을 통해 수집된 연구참여 자별 면담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어 내용의 전체흐름을 파악한 후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분석단계를 이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하였다. 연구자는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구성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 (Strauss & Corbin, 1998)되는 개념을 범주화하여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추상화하였다. 축코딩 과정에서는 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중심현상을 도출하였고,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는 상담활동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중심현상과 연결하여 분석하였으며,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은 사회현상을 토대로 중심현상과 연결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를 도식화 하였다. 선택코딩 과정에서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여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여 체계화하였다. 연구자는 전 과정에서 메모를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의미를 가진 내용을 반

영하였으며,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향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연구타당도는 Lincoln & Guba(1981)가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와 패러다임 모형,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내 자신의 실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받았다. 적용 가능성을 위해서는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역임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상담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제도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폭력피해 지원의 현실이 충분히 나타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이 부분을 분석과정에 반영하였다. 일관성을 위해 논문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설계 및 분석과정에 대해 꾸준히 점검을 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주제를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로 수정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에서 맥락적 조건이었던 ‘반성폭력운동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함’을 인과적 조건으로, 중재적 조건 내용이었던 ‘부족한 재교육’을 맥락적 조건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 2인으로부터 논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받아 분석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데 반영하였으며, 글쓰기 지도를 하는 상담전문가로부터 추상화된 개념과 하위개념, 상위

개념에 대해 의견을 듣고 보완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은 성차별과 성평등이 핵심인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에서 성차별과 편견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개념 및 범주

수집된 자료를 개방코딩하여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한 분석결과 80개의 개념, 24개의 하위범주, 13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

축코딩에서는 본 연구의 개방코딩을 통해 범주화한 자료들을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림 1과 같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중심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경험함’, ‘여성주의를 인식하고 반성폭력운동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함’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성차별(사례1,2,3,4,5)과 성폭력(사례1,3), 가정폭력(사례2,5)을 경험하였다. 반성폭력운동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성차별과 여성폭력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하면서 성차별에 대한 대응력이 생기고,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

표 2.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딸이라서 대학등록금을 부모님께 받지 못함 결혼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함 여성으로서 삶이 계속 불편하고 힘들	여성으로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		
엄마로서 힘에 부치고 후달림 엄마로서 육아에 대해 지지받지 못함 독박 육아로 남편과 갈등을 겪음	육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힘에 부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경험함	
남자 같다는 말을 들음 못 생기고 뚱뚱하다는 말을 들음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음		
가정폭력을 영부터 십까지 다 겪음 알바 할 때 상사가 찍찍거림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함		인과적 조건
여성주의 인식으로 불편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됨 가정폭력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 성별에 대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일상적으로 겪은 불편함을 차별이라고 명명함	차별과 여성폭력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함	여성주의를 인식하고 반성폭력 운동으로 여성주의 상담을 선택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됨 차별에 대해 관철은 안 되지만 이야기함 불편함에 대한 대응력이 생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짐	여성주의 인식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함		
성폭력상담 활동을 선택함 여성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로 함	반성폭력운동을 선택함		
성폭력 지원 관련 교육이 주로 이루어짐 일회성 슈퍼비전이 많음 전문가나 멘토를 찾기가 어려움 기본교육에 머물러 있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적음	부족한 재교육	맥락적 조건
내담자의 역량강화 부분에 늘 죄책감이 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 내담자의 좌절이나 분노가 지속될 때 고민이 됨	내담자 변화가 더딤	내담자 변화에 대한 부담감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함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됨 내담자 역량강화가 어려움 사례개념화와 구조화가 어려움 목표를 잡는 것이 어려움 상담과 사건지원 분리가 어려움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움	여성주의 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	중심 현상
운동 측면의 상담도 전문 상담도 아닌거 같음 항상 초급과정에 머물러 있는 듯한 상담을 계속해도 되는지 의문이 생김 준비 안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상담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회의감이 들		
가해자 처벌이 안되는 법의 한계를 실감함 피해자인데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봄 성폭력 신고율이 낮음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전가됨	변하지 않는 성차별 문화와 제도	중재적 조건

표 2.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 개념의 범주화 (계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내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피해자다움을 강요당한다는 내담자의 말을 들음 피해를 지지받으면서 이야기할 곳이 많지 않다고 들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함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음	성폭력이 계속 일어남		
정부와 민간 사이에 지원기관들이 늘어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	지원기관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가 늘어남	성폭력 상담소 위상의 변화	
여성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함 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함	자신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성찰함	여성주의 상담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내담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하게 함 성폭력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함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내담자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함 상담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인식함 성역할 분석, 권력분석을 함	원리와 기법을 구현하려고 노력함		
동료들과 상담사례 논의, 동료 슈퍼비전을 함 사례개념화, 상담 구조화를 하려고 시도해봄 여성주의상담을 스테디 할 곳을 찾음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함	상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도전함	여성주의 상담 역량강화	작용/ 상호작용 전략
선택과 집중을 함 하루 한 가지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찾음 자기 돌봄으로 사례회의나 슈퍼비전을 받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	자기 돌봄		
강간죄 개정운동을 함 성폭력 이슈 대응활동을 함 내담자 법적지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할 수 있는 건 다함 2차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께함	성폭력 관련법과 인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함	성폭력 이슈 대응활동	
내담자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봄 내담자가 상담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봄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봄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봄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변화	
내담자가 회원활동을 함 내담자가 후원금을 보내음 내담자였던 사람이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상담활동가로 활동함	동료로 만나는 내담자		결과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의 당당한 모습 미투 운동이 일어남 현장에서 요구해온 스트킹 처벌법이 시행됨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성폭력 관련법이 제정·개정됨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여성주의상담은 내 삶의 나침반 우리 밖에 못하는 거구나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 오는구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믿음과 활동에 대한 확신이 들	자부심과 소명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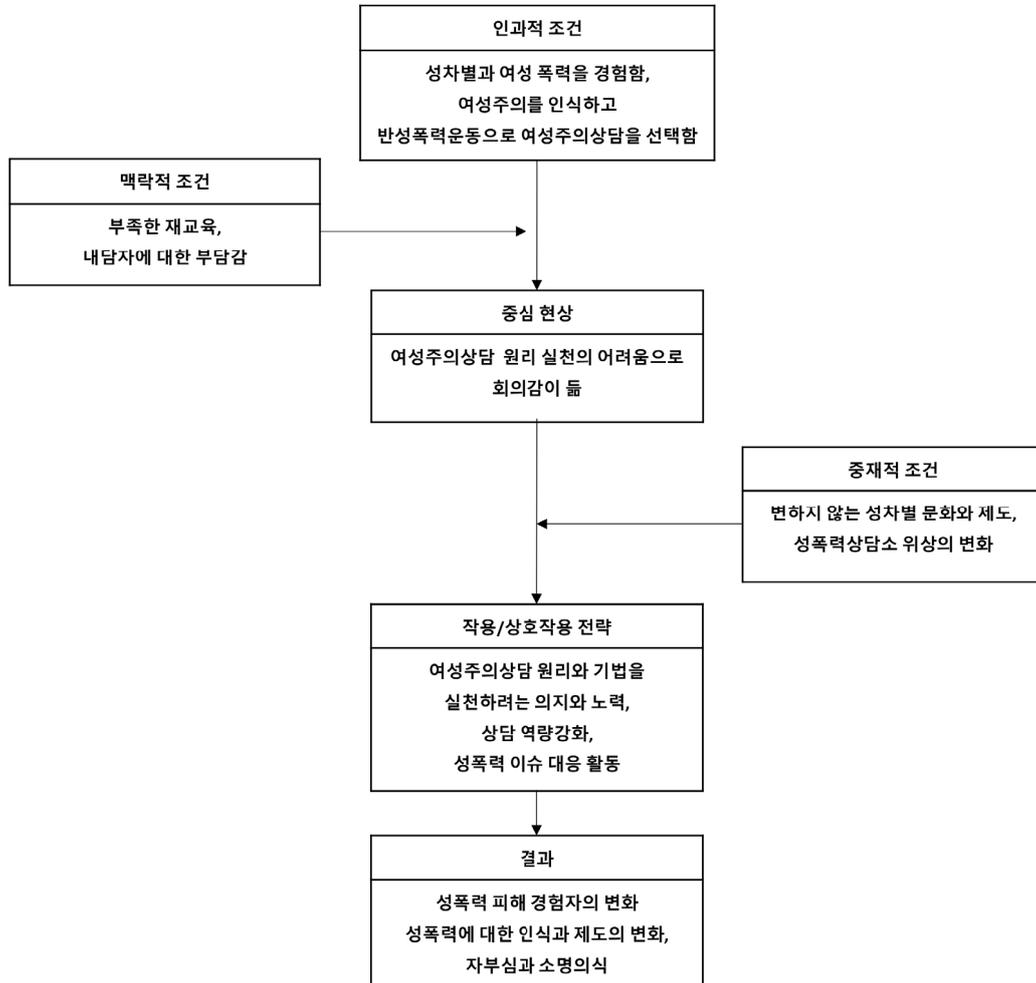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참여자는 아들과 달리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야 했고(사례2),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고, 독박육아를 하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상담을 받아보면 아이는 엄마 책임으로 남는다(사례3). 일상적으로 남자 같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사례1), 딸인데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사례2). 성차별로 인하여 삶이 계속 불편하고 힘든 마음은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기에 표현하지 않

게 된다(사례4). 연구참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이 애매하게 짹짹거리는 성폭력피해가 있었으며(사례1), 가정폭력의 유형을 영부터 십까지 다 겪었다는 연구참여자(사례5)는 여성주의를 알기 전까지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알고 있었다. 성차별에 대한 불편함과 여성폭력의 경험은 청소년기부터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여성인권 관련 활동을 하기도 하고(사례1,3), 성폭력전문

상담원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사례1,2,3,4,5). 교육을 통해 인식하게 된 여성주의는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성차별로 인한 불편함과 여성폭력의 경험을 성차별이라고 명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날아 다닐거 같은 기쁨(사례3)”과 “삶에 뒤통수를 맞는 느낌(사례5)”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대응력이 생겨(사례1) 차별에 대해 관철은 안되지만 이야기를 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 활동을 선택하였다(사례1,2,3,4,5).

저희 오빠는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집에서 대주고, 저희 아빠 엄마가 형편이 안 되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 학기 대주고, 할아버지가 한 학기 대 주고. 나는 집에서 나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제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등록금을 악착같이 제가 벌었어요(사례2)

아이 하나 둘 낳으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부침이 있었어요. 엄마로서 나는 이렇게 후달리고 힘든데 상담을 받다보면 결국 내 뒤통인 거야 아이 문제가(사례3)

여성운동이라고 하는게 여성주의를 인식하게 하고, 넓게는 사회 변화의 주체로, 소극적으로는 내 삶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어떤 언어를 획득하는 거잖아요(사례2)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들으면서 여성주의 사위를 받는 느낌이었죠. 굉장히

허기졌던 내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느낌이었어요. 인식론적인 충격은 그게 상담과 여성주의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왔던거 같아요 (사례3)

정말 가정폭력을 영부터 십까지가 다 제가 다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받고 가정폭력이 일단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너무 편안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탓이 아닌 이거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게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5)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재교육’, ‘내담자 변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를 인식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연구참여자는 여성주의상담 실천에서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속에서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주의상담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이 부족하고(사례4),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원리 중심의 이론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사례2). 여성주의상담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상담이 너무 갈급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멘토가 부족하다(사례5). 슈퍼비전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폭넓은 활동으로 정기적인 참석과 진행이 어렵고,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슈퍼비전 자료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사례4). 연구참여자는 상담과 지원을 통하여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회복될 때 많은 힘을 얻고 있지만 법적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좌절이나 분노가 지속될 때 내담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내담자 역량강화에 죄책감이 들고, 자신의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여성주의가치나 이런 교육이 작년에 한 두 개 있었나? 한 두 번 있었나? 거의 없는 거 같고, 실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례들을 상담으로 잘 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사실은 슈퍼비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만 슈퍼비전을 하는게 쉽지 않아요(사례4)

성폭력은 무고죄로 상대가 걸기도 쉽고 통과구를 못 찾는 케이스일 때 사실 마음이 좀 그러기는 해요. 여성들이 가진 좌절이나 분노가 지속될 때 고민이 되고, 내담자가 쏟아내는 애기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컸거든요(사례1)

중심현상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을 보여주며 어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상담의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는 연구참여자는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천하는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여성주의상담 실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여성주의 의식이 중요한 성폭력 상담에서

오랫동안 내면화된 가부장적 편견과 마주하는 일이었다(사례4). 여성주의 의식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과 만나는 일은 상담활동가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또한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며(사례1,3)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사례2,5). 여성주의상담 기법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사례2),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사례개념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사례2,4,5) 등의 어려움은 여성주의상담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항상 초급과정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사례4) 활동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도 한다(사례1).

내가 여성주의자로서 산다라고 하지만 여성주의 가치가 내 몸에 다 이렇게 부착돼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편견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통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랬던 거 같아요(사례4).

운동 측면에서 상담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상담은 더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약간 어중간할 때 상담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사례1)

동등하게 누군가와 관계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 하되 그

컨트롤 하는 것에 내가 도움을 주는 평등한 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사례1)

상담에 한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다는건 솔직히 아니죠. 제가 했다고 하지만 하면서 너무 어려웠었고, 어느 타이밍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예를 들어서 권력의 수레 바뀌는 초기에 하는게 맞는 거야? 그럼 초기 상담을 이렇게 하면 되나? 사례개념화는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사례개념화를 내가 해도 제대로 했는지...(사례2)

여성주의상담가로 잘 하고 있나 의문점들이 올라와서 착잡한 마음이고 고민되기도 하네요. 예전만큼 이렇게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담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사례4)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구조적 조건으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변하지 않는 성차별 문화와 제도’, ‘성폭력상담소 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성폭력상담에서 성폭력피해 경험자로부터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았다’, ‘나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났다’, ‘피해가 있었지만 말할 곳이 없었다’와 같은 말을 듣는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할 때 법적지원을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어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상담할 때 연구참여자는 활동의 한계를 느낀다(사례1).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은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이 확대되면서 내담자로부터 서비스 차원의 요구가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연구참여자는 반성폭력운동으로서 자신의 여성주의상담 활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상담을 백날 해도 이 사람을 내가 백날 이렇게 공감해 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증명이 중요한데 그 증명이라는게 결국 법적인건데 그건 너무나 한계적이고 그랬을 때 상담이라는게 좀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사례1)

인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인 것들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되기에는 아직 좀 어렵죠. 법적 절차나 이거는 양형이 바뀌고 그렇다 해도 우리한테는 불리하죠(사례5).

정부와 민간 사이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젠더폭력 관련된 대응에서 도움이 반드시 여성단체의 성폭력 상담소 말고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게 무엇일까 예전보다 지위나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사례1)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위이며 중심현상을 조정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식

으로(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상담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 ‘성폭력 이슈 대응 활동’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여성주의 의식을 성찰하고,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질문과 고민 속에 원리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상담에서 성폭력피해 경험자 여성주의를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사례1,2,3,4,5). 성폭력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성폭력 피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인 통념을 점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회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만들고 있었다(사례3). 현장에서 만나는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상담을 마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사례2,3)이라고 생각하며, 성폭력상담소를 여성주의를 인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상담과정에서는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사례1,2,3,4,5)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인식(사례5)하고, 상담활동가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며(사례4), 내담자가 상담자의 편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평등한 관계가 실천되었다는 증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사례4). 연구참여자는 무엇보다 내담자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내담자를

성차별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역할 분석이나 권력분석 기법(사례2,3,4)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성주의를 인식하고 자신의 성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권유(사례5)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상담이나 지원에서 느끼는 고민은 사례회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었다(사례1,2,3,4,5). 상담과정에서 사례개념화나 상담구조화를 시도해보고(사례2,4),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에서 진행하는 모임을 찾거나 기관의 차원에서 기금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과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사례5). 상담과정 외에 법적과정에서 내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 서명운동을 하고(사례2), 지원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내담자에게 누군가가 지지하고 있다는 다른 형태의 힘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사례2).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성폭력 이슈대응 활동에서 또 다른 힘을 얻고 있었다(사례1). 상담활동가들은 출퇴근 시간 지키기(사례1), 아무것도 하지 않기(사례2,4), 사례회사나 슈퍼비전 받기(사례3), 화초가꾸기와 여행(사례5)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돌봄을 하고 있었다.

이 사회에 성폭력이라는게 어떤 나쁜 사람과 불쌍한 피해자가 있는게 아니라 권력의 관계에서 권력의 하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당한 피해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 사회의 권력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줘요(사례 4)

내담자랑 지속적으로 어쨌든 유대감이 라든가 활동을 같이 펼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주의 세미나나 치유회복 프로그램 아니면 소모임 같은 것도 맞춤형으로 내담자의 욕구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요. 한 분은 그림 그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모임으로 연계하고, 또 한 분은 친족 성폭력피해가 있어 친족 성폭력 모임과 연결해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10대 20대면 20대들이 좀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 소개해 드리죠(사례3)

저도 모르게 편견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통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랬던거 같아요. 그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내담자들을 경험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정말 내가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내담자의 힘이 생긴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아팠어요. 너무 좋았다는 말만 하는 내담자보다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분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사례4)

저는 내담자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주안점을 두는게 역량강화예요. 상담하면서 역량강화 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많이 권해요(사례5)

상담사례 논의를 좀 일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해놓고 아침에 잠깐 브리핑하듯이

하고 또 팀 회의 때는 좀 길게 하고,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때 고민되는 사안은 좀 같이 하기도 하고, 상담 사례 논의는 저의 시각을 좀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요(사례1)

내담자의 법적지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의견서도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천명이 동의를 했어 이런 것들을 내담자와 얘기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거 하면서 형사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주위에는 천명이 있는거 알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쾌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가 그래도 우리가 좀 내담자한테 다른 형태의 힘을 드릴 수 있구나(사례2)

결과는 중심현상에 조정하거나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변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회원활동을 시작하는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연구 참여자는 성폭력피해로 상담을 시작한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자신의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사례2), 진행되고 있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지거나 상담소에 즐겁게 오는 모습을 본다(사례3). 이 과정에서 일부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를 지원하는 상담활동가(사례2,5)가 되어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는 성폭력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는

것이 힘든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성폭력피해를 말하는 미투운동이 일어났다는 것과 성폭력상담소를 찾는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당당한 모습,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사례1,3). 오랫동안 현장에서 스토킹 피해를 상담 하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제정되지 않았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생기면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스토킹상담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많아졌다(사례1),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장의 힘이다(사례2). 여성주의상담은 내 삶의 나침반(사례3), 우리밖에 못하는 구나,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 오는구나(사례1)'를 생각하는 순간은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 성폭력이 맞나요? 혹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이런 걸 다 묻거든요. 많이 묻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요”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과인거 같아요(사례1)

사람들이 자기 얘기 꺼낼 때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다면 지금은 다 알아서 뭘 지원받아야 되고 뭘 얘기해야 되는지 거의 알고 오시는 내담자들이 많아서 더 힘드나고, 그 전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내담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피해자들이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이에요(사례3)

성폭력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가가 아니라 이제 너와 내가 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사례2)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성과로 미투 운동이 있었고, 어쨌든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피해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어쨌든 큰 변화를 이뤘죠(사례3)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 오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사례1)

핵심범주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에도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 성폭력 이슈대응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변화 보면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낌’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성폭력운동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한다

상담활동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장 과정, 결혼, 육아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불

편함을 느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 불편함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표현되기 어려웠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를 알기 전까지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서 자신의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하면서 불편했던 느낌과 자신에게 일어난 여성폭력은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겪는 경험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감을 얻은 상담활동가는 성차별에 대한 대응력이 생기고,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성폭력운동으로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하였다.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한 경험은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실천하는 자원이 되어 성폭력피해 경험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여성주의를 인식할 수 있는 회원활동을 연결하여 성폭력상담소를 반성폭력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다

활동을 시작한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 인식이 중요한 성폭력상담에서 오랫동안 내면화된 가부장적 편견을 마주한다. 가부장적 편견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원리 실천을 어렵게 한다. 상담활동가는 내면화된 가부장적 편견과 새롭게 인식한 여성주의 인식이 혼재하는 가운데 반성폭력운동의 의미보다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가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주의상담자로서 정체성을 되돌아본다. 또한 성차별로 인한 평등한 관계의 경험이 부족했던 여성으로서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원리의 실천은 늘 고민이 따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담자의 권력강화 원리는 더 어렵게 느껴진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성주의상담 재교육이 부족하고, 지속되는 내담자의 좌절과 분노의 영향으로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은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여성주의상담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이어지고,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와 성폭력 이슈대응 활동이 계속되다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성폭력상담에서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여성주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상담활동가는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내담자와는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하여 내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담활동가는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담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점검하고,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며, 내담자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역량강화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역할분석과 권력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권유하여 내담자가 여성주의와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활동가는 현장에 필요한 재교육과 멘토가 부족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상담에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상담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성주의상담 스터디에 참석하고, 외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찾고 있으며,

기금사업을 진행하여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재교육과 슈퍼비전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와 성폭력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부당함에 함께 대응하고, 법적과정에서는 내담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 서명운동이나 의견서를 통하여 내담자의 목소리가 법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성폭력 이슈대응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넷째, 개인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통해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끼다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상담 원리의 실천 속에서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주저하던 모습에서 당당하게 상담소를 찾고, 자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함께 회원활동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 일부 내담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지원하는 상담활동가가 되어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는 변화를 보면서 자신이 실천하는 여성주의상담에 대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탐색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주의상담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5명의 상담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여 핵심범주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

움으로 회의감이 들에도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 성폭력 이슈대응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낌’을 도출하였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으로 회의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상담 원리는 내담자의 심리에서 출발해 그 심리가 형성된 과거 외적조건과 내면화 과정을 탐색하고, 내담자를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전문가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외적 조건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내담자의 시각의 정당성도 지지해 내담자의 권력강화를 조력하는 것(김민예숙, 2013)으로 여성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상담 과정에서 실천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자신이 경험한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명명하고 해석하면서 반성폭력운동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선택하였다. 여성주의 인식은 여성주의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실천하게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성폭력 상담에서 오랜 시간 내면화된 자신의 가부장적 편견을 스스로 인식하기도 하고, 내담자를 통하여 마주하면서 새롭게 인식한 여성주의 인식의 혼재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다. 가부장적 편견은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이어져 성폭력피해 경험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에게 일어난 2차 피해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편견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오랜 시간 내면화된 가부장적 편견은 짧은 시간 안에 변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활동가에게 가부장적 편견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김지현(2014)은 성폭력상담원 또한 사회에서 학습된 성과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통념을 넘어 인식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성폭력운동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로서 요구되어 온 피해 지원의 확대는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가 늘어나고,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가 요구되는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결과를 낳으면서(변혜정, 2006) 성폭력 문제의 개선이라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상담소 위상의 변화는 상담활동가로 하여금 자신의 여성주의상담자로서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활동에는 여성주의 가치와 여성으로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랜 시간 내면화된 가치들이 충돌(강문순, 2003)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평등의 원리와 내담자의 역량강화 원리 실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활동을 토대로 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재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멘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상담과 지원과정에서 내담자의 역량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 보다는 좌절과 분노가 지속되는 모습은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항상 초급과정에 머물러 있는 듯 한 느낌이 들거나 상담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면 할수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담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상담 원리를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지 질문과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다. 질문과 고민 속에 여성주의상담 원리와 기법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이어지고, 여성주의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성폭력상담에서 내담자가 여성주의를 인식(Worell & Remer, 2004)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담자가 여성주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여성주의 인식은 상담활동가가 여성으로서 성차별 사회조건 속에서 자신을 경험을 명명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상담에서 성폭력피해 경험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개념화를 시도하고,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역할 분석과 권력분석 같은 여성주의상담 기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는 먼저 다양한 시기에 여성주의를 인식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자기경험을 들여다보고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가부장제에서 성별화 되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폭력피해 여성들과 다양한 삶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만나 여성주의상담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며 좌충우돌해 나가는 상담경험은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전문성을 키워가

는 토대가 된다(강문순, 2003; 구유정, 2018)는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일상적으로 겪는 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 외부에서 진행되는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고민이 되는 상담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회의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돌봄을 하고 있었다. 광범위한 활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성폭력피해 상담과 지원활동 속에서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상담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여성주의상담 재교육과 슈퍼비전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여성주의상담자 교육 모델에 관한 고찰(김민예숙, 강문순, 2004)에서 교육 목표로 여성주의상담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하고, 그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상담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재교육의 부재 속에 여성주의상담 실천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부분 상담활동가들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여성인권운동을 통하여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대두시킨 이후 반성폭력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성폭력운동으로서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상담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여성주의상담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주의상담연구회를 비롯하여 일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여성주의상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활동가

의 참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상담활동가와 여성주의상담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더 많은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상담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주의상담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변화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서 상담활동가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성폭력 상담과 함께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여성주의를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회원활동을 연결하고 있었다. 회원활동을 통하여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소를 찾고, 자신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일부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활동가가 된다. 상담활동가와 회원활동을 하는 성폭력피해 경험자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함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반성폭력운동의 주체가 된다. 상담지원자와 피해경험자들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피해경험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적, 몸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운동에서 해야 할 일이며, 상담활동가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례로부터 활동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여성단체라는 무형의 공간과 성폭력상담소라는 유형의 공간은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공간이 된다(변혜정, 2006; 안은주(2015)는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여성주의 상담활동가가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법적 절차

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축소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통제감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최성화, 2021)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폭행·협박과 저항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폭력 경험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 개정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힘을 얻고 있었다. 성폭력피해 경험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는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스토킹 상담을 통하여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변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성주의상담 실천을 통하여 성폭력피해 경험자의 목소리가 사회로 나가는 현장의 힘을 믿는 상담활동가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소명의식은 개인이나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로써 인식되는 개념이며, 소명의식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의 일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김유리, 서문교, 권인수, 2016).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상담활동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리외상(권해수, 김소라, 2006; 권해수, 2011; 이미혜, 성승연, 2014; 허찬희, 이지연, 2020), 소진(정미진, 송다영, 2010; 이명신, 양난미, 안수영, 김보령, 2016; 정여주, 2012,

정문석 2015), 외상 후 성장(조윤진, 임성옥, 2021)과 같은 심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주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지현, 2013)와 성폭력 상담자의 다전문직간 연계경험(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활동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성폭력상담 현장에서 여성주의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주의상담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의 여성주의상담 실천 과정을 밝혀 체계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8) 등이 포함되고,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상담 과정에서도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 2022). 본 연구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주의상담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여성주의를 인식하

고, 현장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며, 여성주의상담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순간 순간 상담활동가의 각 경험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주의상담을 하게 된 계기,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 활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상담활동가의 심리 각각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활동가는 여성주의상담 원리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성폭력상담 및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현장에서 여성주의상담을 실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희 (2014). 성폭력가해자 프로그램 효과성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강문순 (2003).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전망 - 내담자와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4), 53-82.
- 권해수 (2011).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관련 변인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2(1), 415-430.
- 권해수, 김소라 (2006).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95-518.
- 김광은 (2000). “여성주의 상담원들의 여성의식: 여성의전화 상담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5(1), 15-25.
- 김도희, 안다혜 (2022).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전략에 대한 구성주의 근거이론, 미술치료연구 제29권 제4호 Vol. 29, No.4, 821~848.
- 김민예숙 (1999). 여성주의이론과 여성주의상담. 춘해보건대학논문집, 11, 353~361.
- 김민예숙 (2010). 여성주의상담의 원리들에 관한 이해. 춘해보건대학논문집, 22, 1-9.
- 김민예숙 (2011).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상담 역사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2), 197-218.
- 김민예숙 (2013). 여성주의상담 구조화모델 워크북. 한울아카데미.
- 김민호, 정지혜, 이보람 (2022).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경력자의 섭식장애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36권 제4호. pp. 19-37.
- Kathy M. Evans, Elizabeth Ann Kincade, Susan Rachael Seem. (2020). 여성주의상담 개론 (김민예숙 옮김), 한울아카데미.
- 김민예숙, 강문순 (2004). 여성주의 상담자 교육모델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25.
- 김보화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19권 2호(2019): 3-4.
- 김유리, 서문교, 권인수 (2016). 소명의식의 실행요인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4호, pp75-98.

- 구유정 (2018). 여성주의상담자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2014). 성폭력상담원교육 참여자의 여성주의 인식 수용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신, 양난미, 이명신 (2014).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여성연구 Vo. 87, pp.99~126.
- 변혜정 (2006).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상담의 관계에 대한 연구-상담지원자의 입장에서-. 한국여성학22(3), 229-272.
- 안은주 (2015).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좌절과 대처 과정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4(1), 37-71.
- 이규미 (1996).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1, 128-138.
- 이미혜, 성승연 (2014).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109-137.
- 이지연 (2004). 여성주의 상담의 적용실제와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73-791.
- 이주연 (2014). 국내 여성주의상담 연구 동향분석: 학회발간 학술지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애 (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주 (2021) 복합외상 성폭력 여성피해자의 상담을 통한 자기 재구성과정: 근거이론 적용.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Vol. 22, No. 6, 241-270.
- 전민주 (2012). 성문화 운동가의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석 (2014). 여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소진 극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진, 송다영 (2010). 여성인권지원 단체 활동가의 여성주의 의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젠더와 문화 3(1), 7-38.
- 정여주 (20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소진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19, pp 159-191.
- 조윤진, 임성옥 (2021). 성폭력 전문상담사의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제10권 제2호), vol.10, no.2, pp. 183-204.
- 지경영 (2018). 반성폭력 상담활동가의 성장경험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2016).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여성연구, Vol.87, pp 99-126.
- 이명신, 양난미, 안수영, 김보령 (2016). 성폭력 상담원의 소진 결정 요인: 업무과중, 공감피로, 피해자중심서비와 이차피해태도, 비판사회정책, 제50호, pp 284-333.
-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성폭력 상담자의 다전문직간 연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Vol. 15, No. 3, 1101-1124.
- 최민정 (2019) 성폭력 관련기관 상담자들의 현장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개인적·전문적 영역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화 (2021).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2차 피해 경험과 회복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p21.
- 한영주 (2010).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의 치료

- 적 전환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의전화 (2022).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
- 허찬희, 이지연 (2020). 성폭력상담자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9(11), pp 457-471.
- 대검찰청(2013, 2020, 2022). 범죄분석의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중 성폭력부분
- 법령정보센터 (20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정의 1항.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Enns, C. Z. (1993). Twenty years of feminist counseling and therapy: From naming biases to implementing multifacete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 3-8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Worell, J., & Remer, P. (2004). 여성주의상담의 이론과 실제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An empowerment model for women*. John Wiley & Sons). 김민예숙, 강문순 옮김. 서울: 한울.
- Strauss, A. L.,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73-285.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 York: Sage Publications.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Hook (1984). *Feminist theory: Form margin to center*. Boston: South End Prdss.

1차원고접수 : 2023. 05. 01.

심사통과접수 : 2023. 12. 22.

최종원고접수 : 2023. 12. 30.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actice Process of Feminist Counseling by Counselors at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JongSuk Jeong

SeoungYun S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systematize the process of practicing feminist counseling by counseling activists in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counseling activists working with feminist counseling identity at the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mong qualitative stu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80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13 upper categories were derived through open cod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was analyzed based on a paradigm model through axial coding. Through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feels of pride and a sense of vocation while seeing individual and social changes despite skepticism due to difficulties in practicing the principles of feminist counseling, strengthening feminist counseling capabilities, and responding to sexual violence issues' wa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ocess of practicing feminist counseling by counseling activists at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was discuss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Sexual violence counseling, counseling activists, feminist counseling, and grounded theory